

#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실태와 과제

김철희\*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제협력센터 소장



#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실태와 과제

## 《요 약》

- 2010년 우리나라의 OECD DAC 가입에 따라 원조규모의 양적 증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개발원조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개선, 제고할 수 있는 국제개발협력의 선진화가 요구되고 있음.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무상원조 전략적 집행방향, 원조규모 확대, 원조 비구속화 추진 현황, 원조효과 제고 정책 및 시행방안 등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우리나라는 교육훈련 원조 비교우위 사업 발굴 및 체계적 수행을 통한 ODA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 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 인력 양성이 이루어질 경우 체계적인 교육훈련 과정을 통해 양성된 인력은 해외 취업 등을 통한 청년층 실업문제 해소와 중장기적인 인력 활용 정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이에 본고에서는 교육훈련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본방향으로 첫째,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양성의 양적 확대 및 질적 내실화, 둘째, 국제개발협력 인력수급 차 해소 및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유기적 연계, 셋째, 국제개발협력 컨설팅 산업 육성 및 민간부문 활성화 지원, 넷째,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양성, 배분,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제시하였음.



##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실태와 과제

## I.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양성·활용의 필요성

21세기 국제사회는 개도국의 빈곤감소와 경제사회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원조효과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 등을 중심으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 등 변화하는 개발협력 환경에 대한 이해와 이를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를 모아야 하는 시기이며, 국가 차원의 조정, 주도 기능이 분산, 집중되지 않아(분산 원조체제) 비효율적으로 추진되었던 기존 방식도 국무총리실(국제개발협력위원회)을 지원하는 개발협력정책관실 신설, 중장기적으로 ‘국제개발협력청’ 설립 검토)의 정책 총괄 조정 기능 수행,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등으로 크게 개선되고 있다.

2010년 우리나라의 OECD DAC 가입에 따라 원조규모의 양적 증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개발원조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개선, 제고할 수 있는 국제개발협력의 선진화가 요구되고 있다.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무상원조 전략적 집행방향, 원조규모 확대, 원조 비구속화 추진 현황, 원조효과 제고 정책 및 시행방안 등 마련이 필요하다(2009.11.25 OECD DAC 가입심사특별회의에서 전원 합의로 가입 결정). 정부는 2010년 ODA 규모를 1조3천400여억 원 수준까지 확대 예정이며(2009년 9,350억 원 대비 22.6% 증가), 제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2010년 ODA 추진계획’ 안건을 의결하였다(2009. 12. 18). 또한, 2009년 현재 GNI(국민순소득) 대비 0.09%에서 2012년 0.15%, 2015년 0.25%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OECD 평균 0.3%).

ODA 분야 조달 시장 개방에 따라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기구, 선진 공여국 등이 발주하는 각 분야의 사업에 참여가 가능하여 국제개발협력 전문 인력 양성은 매우 시급한 현안이다. 원조규모 확대에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유기적 대응 시 세계 원조시장을 확보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우리의 원조시장도 잠식, 위협 받게 되는 상황에 직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우리나라 교육훈련 원조 비교우위 사업 발굴 및 체계적 수행을 통한 ODA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원조 관련 국제규범을 준수하면서 선진 공여국, 국제기구 등과 차별화하여 우리나라 고유

의 특화된 원조모델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며, 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 인력 양성이 이루어질 경우, 국내 인력의 글로벌화, 최근 설립되고 있는 대학 등 양성기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련 프로그램의 체계화 유도,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등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체계적인 교육훈련 과정을 통해 양성된 인력은 해외 취업 등을 통한 청년층 실업문제 해소와 중장기적인 인력 활용 정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상호의존성 증대에 따라 교육훈련분야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고, 특히, 지식, 기술 및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현재 교육훈련 분야의 국제개발협력에 종사하는 인력은 양적 규모나 질적 수준 모두 크게 부족하며, 체계적인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교육훈련이 개도국의 국가발전전략 및 빈곤 퇴치전략 등에 벤치마킹 대상이 됨에 따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개도국 및 국제기구, 기타 관련 대상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교육훈련 경험, 노하우 전수 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 진출기업과 연계한 교육훈련 개발협력 요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Ⅱ.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의 개념 및 분류

### 1. 국제개발협력

국제개발협력은 국가 간의 개발을 위한 협력체제를 의미한다. 국제개발원조는 공여국이 수원국에 일방적으로 원조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란 OECD DAC가 정한 수원국 리스트에 있는 국가, 지역 및 다자간 개발협력기구에 제공되는 자금 또는 기술 협력을 의미한다. ODA는 중앙 및 지방정부, 그 집행기관 등의 공적기관에 의해 제공되어야 하며,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하고, 공여조건이 완화된 원조 즉, 증여율(Grant Element)이 25% 이상인 양허성조건의 자금이어야 한다고 OECD DAC에서 규정하고 있다.

ODA의 주된 목적은 수원국의 경제사회발전과 복지증진에 있지만 개발원조를 지원하는 동기는 공여국의 국가목표와 국익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개발 분야 연구자들은 원조의 다양한

동기를 크게 정치적, 경제적, 인도적 동기로 분류하고 있으며, 최근 상호의존에 대한 인식도 포함하고 있다.

## 2.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전문인력은 해당 분야 전문성과 언어 구사 능력, 국제개발협력 사업 참여 경험을 보유한 자(국제개발협력 관련 학위과정, 특별과정 등 이수자 포함)로, 국제개발협력 산업·직업 또한 국제개발협력 사업 수행과 관련을 맺고 있는 산업 및 직업군 종사자(국제개발협력 컨설팅 산업으로 총칭 여부 및 관련성)로 정의할 수 있다.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에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Generalist는 행정업무 처리에 필요한 기본 자질을 보유한 인력을, Specialist는 원조 관련 내부혁신, 시스템화 주도를 위한 전문성(정책분석 및 개발, 프로그램 계획 및 관리, 기술(수행평가 및 섹터 전문가 포함), 재정, 인적자원, 계약, 정보와 지식관리 역량 및 공공행정, 정책적 대화 능력 등을 보유한 인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 3. 국제개발협력 분류

국제개발협력 산업 및 직업 분류를 현행 국가표준산업분류와 국가표준직업분류 상 기준을 적용해 보면<sup>1)</sup>, 국가표준산업분류 상 공공부문, 대학, NGO 등은 별도의 산업으로 구분될 수 있다. 즉, 공공부문의 기관 즉, 정부부처, KOICA, 한국수출입은행 및 정부 지원 산하, 소속기관의 경우,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 U 국제 및 외국기관(99) 등으로 분류되며, 대학은 P교육서비스(85)-고등교육기관(853)-대학원(85303), 기타교육기관(856) 등에, NGO는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94~96)-기타 협회 및 단체(949)-시민운동단체(9493)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즉, 개별 기관의 고유 성격에 따라 국가표준산업분류의 해당 영역에 분류되게 된다. 국가표준직업분류를 기준으로 보

1)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특수성으로 인해 기존 국제 분류 및 국내에서 적용하고 있는 표준산업분류와 표준직업분류 등의 기준에 일괄 적용하기에는 한계와 제한이 있어 이를 규정하고, 범주화 할 필요가 있다. 즉, 국제개발협력에 유상원조도 있지만 무상원조 부문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무상원조의 경우 정부지출, 비영리사업 등에 해당되어 지출계정으로만 계상되어 일반적인 투입, 산출 및 이윤 창출 구조의 재무흐름과는 상이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를 범주화 할 수 있는 분류기준을 살펴보고, 적용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새로운 국제개발협력 산업 및 직업분류 기준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면, 국제개발협력 분야 종사자는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01년 이후 매년 75,000 가구 조사, 228개 산업소분류, 426개 직업세분류별 노동시장 정보를 조사하는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OES)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국제개발협력 관련 산업 종사자 수 비중은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3.2%, 교육서비스업 7.6%, 협회및단체기타개인서비스업 5.5%, 국제및외국기관 0.1%로 나타나며, 직업별로는 관리직 1.4%, 교육및자연과학사회과학연구관련직 6.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대한 산업, 직업 규모를 포함하는 해당 산업, 직업의 전체 규모를 보여주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국제개발협력 분야를 구분하거나 이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을 파악, 추정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영역, 범위 선정과 이 분야 종사자의 규모, 향후 종사인력에 대한 인력수요 전망 등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이를 위해 국가표준산업분류 및 국가표준직업분류, OES 등 국가통계표준에 국제개발협력 분야가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분류 신설, 혹은 별도의 분류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산업 및 직업분류(특수분류 포함) 절차, 과정 등을 통해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국제개발협력 분야는 보편성과 특수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산업 및 직업분류에 적용할 경우 전 분야가 해당되고, 국제개발협력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일부에 한하여 특수분류의 기준에 맞추어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일반적으로 국제개발협력 사업 수행 중 개발단계에서는 지역 전문가가 중요하고, 실행단계에서는 분야별 전문가의 전문성이 중요하다. 전문인력 분류 시에도 분야, 지역 및 해당 전문분야와 General Skill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에서는 팀리더(수출입은행 소속 당해 사업 담당자), PM(과제 수주 소속 기관 컨설턴트), 엔지니어, 이코노미스트(지역, 전문분야), 경제적 타당성 등을 지원하는 재무지원관(financial advisor) 등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KOICA에서는 단계별로 분류하며, 기획 발굴 영역의 전문가와 실행 단계의 PMC 기관 소속 전문가로 구성(PMC 선정 이후 단계는 Outsourcing 으로 진행)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은 크게 사업 기획·관리(실행)·평가 전문가,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교육훈련 전문가 등 역할별로 구분할 수 있다.

〈표 1〉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분류(안)

대분류	세부 분류
사업 기획·관리(실행)·평가 전문가	- Project·Program Manager
	- Regional·Country Director
	- Program Coordinator
	- Evaluation Specialist
분야별 전문가	- Field Specialist
교육훈련 전문가	- Training Program Leader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분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다. ① Project·Program Manager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프로그램 혹은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실질적으로 사업 전반을 관리, 운영하고, 그 결과에 대한 전반의 책임을 지는 자, ② Regional·Country Director는 사업 해당지역 전문가 혹은 현지에서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자, ③ Program Coordinator는 정부부처, 전담기관 등에서 관련 프로젝트 혹은 프로그램을 지시, 관리감독, 협조하는 조력자, ④ Evaluation Specialist는 사업 진행 시 사전, 중간, 종료, 사후평가 등을 수행하는 평가자, ⑤ Field Specialist는 해당 프로그램 혹은 프로젝트의 세부 분야별 업무를 담당하는 실질적 전문가, ⑥ Training Program Leader는 자체 및 연수사업 전반을 관장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는 전문가 등이다.

역할, 단계, 업무, 분야 등과 관련하여 논의 여지가 매우 많은 만큼 본 연구에서는 조작적 기준에 의한 정의를 제시하며,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특수성 및 프로젝트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프로젝트 책임자의 역할, 분야, 단계별 추진 절차 등을 기준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표 2〉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단계 및 역할 구분

역할		단계	기획(형성)단계	실행단계	평가단계
PM					
개별 전문가	ODA(총괄) 전문가				
	분야 전문가				
지원 그룹					

내용전문가의 경우, 추후 사업 경험과 노하우 습득으로 PM으로 활동이 가능하다. 제시된 직무모형의 경우 입찰 후 사업실행 단계에서 PM의 업무이며, 모든 프로젝트 책임자에게 적용 가능하도록 제시하였으며, PM의 경우, 사업을 전체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나 세부 내용까지 PM이 모두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한국수출입은행에서는 전문가 분류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3조1항에 명시된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자격기준에는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기술분야 업무 수행 경력자, 과학기술분야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전문대학 과학기술분야 졸업 후 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 업무 수행 경력자 등으로 기술인력을 구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분류기준(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따라 초급기술자, 중급기술자, 고급기술자, 특급기술자 등으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기도 하다.

〈표 3〉 엔지니어링기술인력의 자격기준

기술인력	필수기술인력
1. 기술사 2. 기사 3.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자 4. 과학기술분야(정보처리부문의 경우에는 과학기술분야 외의 분야를 포함한다)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5. 전문대학의 과학기술분야(정보처리부문의 경우에는 과학기술분야외의 분야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1. 기술사 2.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3.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4. 박사 5.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6.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7.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년 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자료: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KOICA에서는 전문가를 경력과 파견 횟수를 기준으로 4개 분류로 차등화하고 있다.

〈표 4〉 KOICA 전문인력 구분 기준

구분	요건(경력기간)
준전문가	5년 이상 10년 미만 경력
일반전문가	10년 이상 경력
고급전문가	KOICA사업 1~2회 파견
특별전문가	3회 이상 파견

주: 단, 고급 및 특별전문가는 활동평가 우수자만 파견횟수 인정

### Ⅲ.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현황 및 문제점

#### 1. 기관별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및 양성프로그램 현황

국제개발협력 관련 전문인력은 공공 부문(정부 부처, 산하기관, 연구기관 등), 대학, 민간 컨설팅, NGO 등에 분포되어 있다.

공공 부문은 국제개발협력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관, 운영하고 있는 국무총리실을 비롯하여 무상원조를 총괄하는 외교통상부, 유상원조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있고,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을 맺고 있는 부처로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전담 기관으로 무상원조를 전담 운영하고 있는 KOICA, 유상원조(EDCF)를 전담하고 있는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있다. 이와 별도로 이들 전담 기관으로부터 각종 프로젝트, 국내 초청 연수 등을 위임받아 운영하고 있는 각종 정부 산하, 재정투자 기관이 있고, 민간 부문으로는 대학, NGO, 컨설팅사 등이 있다.

#### 가. 공공부문 전담기관

##### 1)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국제협력단은 1991년 정부의 대개도국 무상원조사업 전담기관으로 설립되어 개도국과의 우호

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이들 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조직은 본부에 이사장, 감사(비상근), 4 이사, 7부, 5실, 2관, 21팀 및 28개국 29개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인원은 2010년 9월 현재, 228명이다.

KOICA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할 전문가를 홈페이지 및 기 참여 전문가를 대상으로 접수받아 DB로 입력 관리하고 있다. 전체 전문가 DB는 행정제도팀에서 일괄 접수, 관리하고 있으며, 각 분야 별 전문가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다.

전체 전문인력 현황은 KOICA 행정제도팀과, 교육분야 전문인력 현황은 교육팀과 협력하여 전문가 DB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기간은 전체 전문인력은 2010년 9월말 현재, 교육분야 전문인력은 2007~2009년 총 3년간 참여 인력 대상이며, 기존 DB 상의 변수를 활용했으며, 누락 변수는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DB 상 활용변수는 먼저 전체 DB의 경우, 인적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외국 어사항, 자격사항 등이며, 교육 분야 DB는 전체 DB에 소속, 참여횟수, 참여역할, 지역 등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KOICA 등록 전체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는 2010년 9월말 현재 총 2,004명이며,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746명(37.2%)으로 비중이 가장 높고, 분야별 분포는 산업에너지 분야가 383명(19.1%)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정보통신 분야 349명(17.4%), 교육 분야 282명(14.1%)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분야별분포

지원분야	빈도	구성비(%)
교육	282	14.07
국가	2	0.10
기후변화/환경	240	11.98
농어촌개발	198	9.88
다분야	29	1.45
보건의료	276	13.77
산업에너지	383	19.11
원조이슈	6	0.30
인도적지원	2	0.10
정보통신	349	17.42
행정제도	235	11.73
기타분야	2	0.10
계	2004	100

현직이 있으면서 참여한 경우가 631명(31.5%)으로 비중이 높고, 등록 인력 중 실제 참여(파견)경험이 있는 인력 비중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기후변화 분야와 보건의료 분야는 30대 비중이 각각 51명(30%), 110명(39.9%)로 가장 높으며, 농어촌개발 분야는 50대가 64명(32.3%)으로 가장 높은 특성을 보인다.

KOICA에 등록된 교육분야 전문가는 2010년 9월말 현재 총 187명이며, 2009년을 기준으로 연령별로는 40대 비중이 33명(40.2%)으로 가장 높고, 성별로는 남성이 63명(76.8%), 학력별로는 석사가 29명(35.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속기관별로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이 20명(24.4%)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참여역할별로 사전조사단 비중이 37명(31.6%)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공과전문가, 책임전문가, CM 등으로 나타났다.

〈표 6〉 교육 분야 참여 역할별 분포

참여역할	2007		2008		2009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조사단	68	85	29	43.94	37	31.62
책임전문가	1	1.25	8	12.12	22	18.80
공과전문가	10	12.5	17	25.76	28	23.93
CM전문가	0	0	10	15.15	19	16.24
건축전문가	1	1.25	1	1.52	2	1.17
평가	0	0	1	1.52	9	3.69
계	80	100	66	100	117	100
파견전문가수	55	-	52	-	82	-
전문가 일인당 파견횟수	1.45	-	1.27	-	1.43	-

## 2)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은 우리기업의 자본재 수출과 해외투자, 해외 자원개발, 주요자원의 수입 등에 필요한 중장기 금융 및 대외경제협력기금,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대외경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공적 수출신용기관이다. 이 중 대외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은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1987년 설치된 정책기금이다. EDCF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에 IT, 수자원, 교통, 교육, 보건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 사회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EDCF를 재원으로 유상원조(Loan)을 담당하고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국제개발협력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은 경험기획실을 중심으로 약 70여명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전문가 DB를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총 2,968건으로 개인이 2,464명, 법인이 504건이다.

〈표 7〉 산업분야별 컨설턴트 등록 현황

산업 분야	개인	법인	합계
토목	791	98	889
관광	18	10	28
금융	144	15	159
행정/법	64	15	79
교육	169	29	198
경영	122	18	140
경제	74	6	80
환경	112	47	159
ICT(정보통신)	577	88	665
전기/전력	162	50	212
기계	68	27	95
보건	54	27	81
건축	65	57	122
자원개발	16	6	22
농수임	28	11	39
합계	2,464	504	2,968

주: 산업분야별 등록현황의 합계와 컨설턴트 Pool 등록자 합계의 불일치는 산업분야별 복수 등록에 기인

산업분야별로 보면, 개인의 경우, 토목이 791명으로 가장 많고, ICT가 577명으로 전체 전문가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한국수출입은행의 국제개발협력 분야 사업이 엔지니어링 등 전문분야에 특화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교육분야는 169명으로 나타났다.

소속기관별로는 사기업이 1,484명, 대학이 334명, 공공기관 및 공기업이 189명의 순으로 나타나 일반기업 소속이 가장 많았으며, 전공분야별 분포는 토목이 614명(26.8%)로 가장 비중이 높고, 다음으로 전기전자가 276명(12.1%), 경영 195명(8.5%) 등의 순으로 나타나 이공계 중심의 전문가 특성을 볼 수 있다.

법인 컨설턴트 현황을 보면, 기관규모별 분포는 301인 이상 규모의 기관이 81개(26.7%)로 가장 비중이 높고, 101~200인 이하가 52개(17.2%)이며, 사업 참여별 분포를 보면, 전체 303개 기관 중 1회 이상 참여한 기관이 213개 기관으로 비중이 높으며, 그 중에서도 10회 이상 참여한 기관 수가 151개(49.8%)로 나타났다.

〈표 8〉 법인 컨설턴트 사업 참여 경험별 분류

구분	빈도	비율(%)
0회	88	29.04
1회~2회	22	7.26
3회~4회	23	7.59
5회~9회	17	5.61
10회이상	151	49.83
기타(자료 없음)	2	0.66
전체	303	100

## 나. 공공부문 기타기관

### 1) ODA교육원

원조실무전문가를 위한 체계화되고 전문화된 교육 제공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국내 최초의 ODA 전문교육기관인 KOICA ODA교육원을 설립하였다(2010.3.15). 교육목표로 핵심역량 강화를 통한 개발원조 전문가 육성, 사업 참여자와의 파트너십 강화, 국민의 ODA 이해도 제고를 삼고

있으며, 개발협력 수행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능력 배양, 개발협력과 ODA에 대한 이해 증진을 통한 저변 확대, ODA 전문기관으로서 KOICA의 역량강화 및 위상제고를 세부 추진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개발협력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을 위한 전문과정과 미래에 개발협력 전문가를 희망하는 일반인을 위한 일반과정으로 구분하여, 장·단기적 개발협력 인재 육성과 역량강화가 가능하도록 기획하였다. 전문과정에서는 개발협력의 현황에 대한 기본지식과 사업수행방식과 체계, 개발협력 사업수행의 가장 기본적인 툴(Tool)인 Project Design Matrix의 기획 및 활용법, 경제성 분석 및 젠더, 환경, 빈곤 등의 Cross-cutting issue 등을 포함한 프로젝트의 기획, 실행, 평가에 대한 실무 지식을 다룬다. 일반과정은 개발협력과 ODA의 현황과 분야별, 이슈별 동향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

정규과정은 개발협력과 관련된 분야별, 이슈별로 나누어진다. 보건, 교육, IT 등과 같은 다양한 세부분야, 인권, 환경, 젠더와 같은 이슈, 다양한 개발도상국별 개발협력 상황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또한, 기관별, 단체별로 특화된 교육수요에 대비하여 특별과정을 운영하는데 단체별, 기관별로 특정한 교육수요가 있을 경우, 개별적인 교육수요분석(Training Needs Assessment)를 통해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ODA교육원의 교육과정은 개발협력 수행 실무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설립되었으나 일반과정보다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심화과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실무에 기초한 전문적이고 심화된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표 9〉 ODA교육원 교육과정(2010)

교육대상	기본과정	중급과정	고급과정
일반교육	국제개발협력과 ODA	국제 개발 이슈별 전문과정	국제개발협력 전문가과정
	원조효과성과 국제개발협력 동향		
전문교육	KOICA 파견컨설턴트 사전교육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 관리	
	KOICA 협력기관 교육		
	KOICA 모니터링 및 평가수행자 교육		
	KOICA-NGO 협력교육	ODA 조사기법 세미나	
	KOICA 연수운영교육		
	ODA 공공파트너십 교육		
	KOICA 사무소 현지인력 교육		
특별교육	수요에 따라 기획 및 수행		

## 2) 경제개발경험공유사업

국제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존 개발협력에 대한 반성을 기초로 정부와 기업의 세계화를 지원하고 우리 고유의 개발경험을 경제협력 전략국가들(Development Partnership Countries: DPCs)과 체계적으로 공유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가 2004년부터 도입한 프로그램이 경제개발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이다.

KSP는 지난 한세대 동안 절대 빈곤에서 탈출한 우리 개발경험을 공유하는 정책자문 사업으로서 경제협력 대상국들에게 Software(발전정책 및 제도)와 Humanware(인력개발 및 네트워킹) 위주의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협력관계 구축하고, 대상국가와의 공동번영과 우호증진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KSP사업은 DPCs의 정책과제에 대한 분석적 연구 및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자문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개도국의 개발문제를 민관전문가들의 시각에서 분석, 다양한 협력수단의 통합을 통한 정책대안 모색하는 종합적인 경제개발사업, 개도국의 경제개발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의 경제개발경험을 기초로 실증적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중심 컨설팅사업, 분야별 연구, 정책자문, 능력향상 등 사업의 주요활동을 통해 대상국의 제도적 역량을 구축 또는 강화하고 그 제도를 운영할 관료나 전문가들의 정책개발 및 정책운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둔 정책능력 개발사업, 개도국의 경제개발정책, 고위정책결정자의 주요관심사 등 사업대상국의 직접적인 개발수요에 초점을 둔 전형적인 수요중심 맞춤형 사업, 대상국의 요청에 따른 후속사업의 적극적 수용, 대상국 외 경제외교협력 전략국가를 포함하는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정책수단 기능도 수행한다.

KSP 사업은 그 특성상 무형의 지식을 재구성하고 공유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활동은 참여컨설턴트들에 의해 수행된다. 즉, PM과 컨설턴트들은 대상국의 경제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함은 물론 비교분석을 통해 해결대안을 마련하고 최종적으로 정책결정자에게 그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KSP 사업 대상국은 45개국(중복 포함)이고 수행과제는 157개이지만, 2010년 사업 중에서 현재 세부실태조사중인 일부국가의 과제는 세분화가 되지 않은 상태다. 대상지역별 사업시행 회수(정규, 계속 및 집중지원 사업을 포함)를 보면, 동남아(몽골 포함)가 15회, 중동국가(사하라 이북 아프리카 포함)가 14회, 중앙아가 8회, 아프리카(사하라 이남지역)가 5회, 중남미가 5회이고, 동부유럽 및 기타 지역이 2회다.

2004-2010동안 KSP사업의 연구와 자문에 직접 참여한 전문가는 210명이다. 전공별로 구분하면, 참

여 컨설턴트 대부분이 경제학 전공자이고, 박사학위 소지자들이다. 참여전문가들의 대부분은 학계, 연구소 출신이고, 관계나 업계 출신전문가는 소수이다.

대부분의 개발컨설턴트들은 전문성과 관련된 교육을 받았지만, 정책컨설팅과 관련된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KSP사업을 통해 제시된 정책제안들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실무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의 충원이 필요하나 풀타임 컨설턴트가 부족하다. 단기적으로 전문성과 열정을 가진 전문가를 발굴·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개발경험의 모듈화와 관련 분야별 실무경험에 기초한 차세대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발경험 체계화를 통한 간접경험과 함께 일정기관 과제 관련 해당기관에 위탁하는 인턴과 같이 실무 경험을 습득하여 컨설턴트로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다. 민간부문

### 1) 국제대학원

고등교육 단계에서의 국제개발협력 관련 기관은 국제대학원이 유일하다. 우리나라는 학부과정에는 개설되어 있지 않으며, 국제대학원의 국제개발협력 전공 활성화도 2007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수도권대학 특성화 사업 중 지정사업 공모를 통해 경희대와 이화여대가 선정됨으로써 국내 최초로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양성사업이 시작되었다. 물론 그 동안 국제대학원에서 국제개발협력 전공이 개설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나 대부분 국제통상, 국제경영, 국제관계, 지역학 등 다양한 전공영역 중의 하나였으며, 실질적으로 교양, 전공필수 등의 교과목을 제외하면 국제개발협력 분야를 대상으로 한 전공 및 교과목이 특화되어 개설·운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 10〉 주요 대학의 국제대학원 개설 내용

학교명	과정 수	전공분야
경희대 국제대학원	4	국제통상학과(국제개발협력학), MKE과정: 개발협력 석사과정
고려대 국제대학원	4	국제학과(국제통상, 국제개발협력, 국제평화와 안보지역학)
대구가톨릭대 국제대학원	3	국제행정학과, 국제통상및비즈니스학과, 국제지역협력학과
부산대 국제전문대학원	6	국제지역·협력전공, 한국학전공, 글로벌비즈니스전공
서울대 국제대학원	5	국제통상, 국제협력, 국제지역학, 한국학, 국제개발정책학
아주대 국제대학원	5	국제경영, 국제통상, 국제개발협력학, NGO학, 한국학과

<표 계속>

학교명	과정 수	전공분야
연세대 국제대학원	5	한국학, 국제지역학, 국제협력학, 국제무역&금융학, 국제경영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6	국제학부: 국제무역&투자, 국제비즈니스, 개발협력, 국제관계전공
KDI 국제정책대학원대학	6	MPP프로그램: 경제개발정책학(MPP/ED)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12	국제개발학과, 국제관계학과
한반도국제대학원대학교	3	국제지역학과, 국제협력학과, 비학위과정: 선교·NGO특별과정

주: 지역학 대학원은 제외, 대학알리미 자료 활용

우수사례로 평가되는 경희대 국제대학원의 경우, 석·박사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학술프로그램과 실무능력 함양을 목표로 하는 실무프로그램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2010년 3월 까지 총 입학생은 65명(석사 52명, 박사 13명)이다. 석사과정은 국제개발협력개론, 개발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개발경제학, 기능심화 등이, 박사과정은 원조와 경제발전, 계량경제 분석, 거버넌스와 발전, 프로젝트사이클 매니지먼트 등이 필수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실무전문가 영입, 정규수업(기능심화), 해외인턴십, 해외연수파견, 국제기구 기술지원 프로젝트 수행 등을 통해 실무 전문성을 함양하고 있다.

그 동안 국제대학원은 국제개발협력 관련 인력을 양성·공급하였으나 실제 이들 인력들이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관련 분야 및 사업에 종사하거나 기여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는 국제대학원 과정을 이수한 후 관련 분야로의 용이하지 않은 진입, 이행경로, 언어능력과 국제개발협력 기초소양에 기초한 실무능력과 경험을 우선하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특수성 등에 기인한다.

향후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국제대학원의 활성화와 체계적 지원, 국제대학원과 국제개발협력 관련 일자리를 연계하는 효율적인 교육시장-노동시장 이행체계 구축, 현장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교육훈련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학교교육 즉, 초·중등교육 단계에서부터 국제개발협력의 중요성, 체계적 학습 체계 구축이 요청된다. 2009년 이후 KOICA 지원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학의 국제개발협력 강좌 개설 사업인 ‘국제개발협력이해증진’ 사업의 확대와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 2) 민간컨설팅

국제기구 및 선진공여국에서는 국제개발협력 관련 사업 참여를 컨설팅으로 통칭하거나 참여자를 컨설턴트로 칭하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개발협력 사업들이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다수 수행하는 구조적 특성이 있으며, 민간부문에서 컨설팅을 수행하는 기관 또한

KOICA, 수출입은행 등 전담기관에서 다년간 재직하면서 직무경험을 토대로 은퇴 후 관련기관을 설립·운영하는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절대적으로 전문 컨설팅기관이 적으며, KDS 등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는 전문 민간컨설팅이 전무한 실정이다. 아울러 정부 출연기관 및 개인 중심의 개발협력 사업 추진체제로 인해 산업육성 측면에서 발전과 관련 전문가 육성에 한계가 있다.

정부출연, 산하기관 등 공공부문이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인원증원과 조직을 확대하고 있다. 이는 사업수행을 주관하는 전담기관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성을 기반으로 수주에 유리한 지위를 부여하는 관행과 최근 전담기관 또는 관계부처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관이 설립되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컨설턴트 육성 시스템과 유사한 것으로 단기적으로는 유용성이 인정되나 보다 전문화된 우수 민간기관 육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건전한 시장형성과 전문기관의 설립을 위해서는 보다 유연한 대응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올 해 국제개발협력 컨설팅협회 설립이 추진되고 있으나 기구의 형성, 안정 및 역할의 명확화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단체의 역할 강화로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협업기반을 마련하고, 사업수행 체계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풀타임으로 국제개발협력 컨설턴트 활동을 위한 유인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국내 컨설턴트의 단가가 국제 수준에 비해 2~5배 낮은 등 참여기제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또한 Junior 컨설턴트의 육성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인력수급 및 활동영역이 보장되지 않은 현실적인 장벽이 존재한다.

〈표 11〉 국내 및 해외 원조기관 컨설턴트 단가 비교

(단위: US\$, 1\$=1200원 기준)

전문가/컨설턴트 등급	한국	해외 원조기관 A	해외 원조기관 B
특급(15년 이상 경력)	3,850~4,950	14,100	22,500
고급(10~15년 경력)	3,300	10,850	9,000~16,000
중급(5~10년 경력)	2,750	7,600	
하급(3~5년 경력)		4,350	6,000~9,000

우리나라 민간 컨설팅기관들은 주로 국내 사업수주에 국한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기업형으로 체계화된 선진공여국과 달리 규모나 역량측면에서 매우 영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많은 부분을 민간컨설팅 기관이 수행하고 있으며, 수익성이 보장될 경우, 다국적 컨설팅기업의 한국 원조컨설팅 시장 참여는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컨설팅이 필수요소인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 비중이 작고, 이와 관련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

지 않아 민간부문에서의 자생력과 대응역량을 갖추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민간건설링 기관의 참여활성화와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사업 수행시스템(입찰, 사업기간, 단가 현실화, 예산집행의 효율화) 개선과 더불어 OECD DAC 가입에 따른 국제조달시장 참여 촉진을 위한 체계적 육성,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3) 개발NGO

유상원조(1987년), 무상원조(1991) 체계화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개발NGO가 본격적으로 활동한 것은 1990년 이후이다. 해원협 회원단체 수는 2003년에는 36개 단체, 2005년에는 46개 단체, 2007년에는 56개 단체, 2009년 66개, 2010년 10월 현재 74개 단체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외에도 삼성꿈장학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국제협력단이 시행하는 지원사업 응모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중 해원협 회원이 아닌 단체들도 많으며, 또한 적지 않은 외국인노동자 지원 단체들이 해외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KOICA의 KOPIS 프로그램에 등재된 단체와 해원협 회원단체를 고려하면 우리나라 개발NGO 범주 안에 들어갈 있는 단체들은 최소한 약 100여개 이상으로 추산할 수 있다.

〈표 12〉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회원 수

년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회원단체 수	31	33	35	36	40	44	48	58	62	63	74

자료: 해원협 사무국

우리나라 개발NGO의 재정규모를 보면, 2009년 현재 50여개 개발NGO의 해외사업예산을 기준으로 172,266백만원이다(신재은 외, 2010).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현금이 143,481백만원으로 83%이며, 물자가 29,785로 17%를 차지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67개 단체의 74%인 50개 단체만을 대상으로 하기에 그 실제 내용은 더욱 규모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표 13〉 한국 개발NGO 해외사업 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규모	계
현금	142,481(83%)	172,266
물자	29,785 (17%)	

자료: 신재은 외(2010), 「2009년도 한국개발NGO 현황」

50여개의 개발NGO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정규직,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총 5,963명이며, 실제로 본부 내에서 해외사업을 담당하는 직원 수는 총 343명으로 전체 직원의 5.7%에 해당한다. 이는 개발NGO에서 매우 적은 인력이 해외사업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해외사업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자의 수가 50,463명이다. 규모별로 보면, 직원이 1,000명 이상인 단체가 2개, 100명이상 1,000명이만 단체가 6개, 50명 이하 39개로 직원 수 50명이하의 단체들이 전체의 78%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해원협의 실무자 역량강화사업은 개발원조 실무자기초교육과 중급교육 두 가지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이 중 해원협의 ‘실무지역역량강화사업’은 개발NGO 참여자들에게 매우 유익한 교육훈련프로그램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 개발NGO들은 대체로 자체적인 직원들의 역량개발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이는 단체의 역사와 규모 및 조직역량 등에서 기인한 것이다.

우리나라 개발NGO 역할 강화 및 인력양성 효율화를 위하여 기존 NGO 기능과 더불어 많은 참여 인력들이 국제개발협력 사업 수행능력과 의지를 겸비한 잠재적 전문인력이므로 이들 그룹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공공부문의 국제개발협력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지역, 분야까지 진출해 있는 특성이 있으므로 지역전문가, 분야별 전문가로 육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4) 전문대학

전문대학은 1979년 127개교 91학과, 입학정원 78,455명으로 출범 이후 2009년 146개교, 233,726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고등교육기관 중 학교 수 42.7%, 재적생 수 24.1%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중추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 팽창과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중하위 수준의 전문대학 중심으로 경쟁력이 하락, 학생충원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타 교육기관의 장점을 넘어서는 전문대학만의 강점 확보 촉진 전략이 필요하다.

〈표 14〉 전문대학 변화 추이(1999~2009)

년도	1999년	2009년	증가율	2020년
학교수	117교 (국립16, 사립 101)	146교 (국 2, 공 8, 사 136)	25%	
입학정원 (재적생)	130,520명 (323,825명)	233,726명 (771,854명)	79% (138%)	
학령인구	92만명	65만명	- 29%	52만명

올해부터 해외 맞춤형교육의 글로벌 전문대학 육성을 위하여 직업교육 국제화 거점역할을 하는 GHC(Global Hub College)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동안도 전문대학은 글로벌 해외연수, 해외 현지체험, 해외 인턴십, 해외 공동학위·학점교류·현지학기제, 국제교류 및 해외봉사 활동 등 다양한 전문대학 국제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전문대학의 주요 직업교육 국제화 형태는 해외 진출 기업과 연계하여 현지 필요인력에 대한 교육 및 취업 프로그램 운영과 해외 전문대학(직업교육기관), 기업, 정부기관 연계, 해외 전문대학에 직업교육프로그램 공급 및 현지·초청교육 등 전문대학 직업교육 프로그램 해외 수출 등이다.

전문대학 구조개선 차원의 신규 사업 분야, 사업모델 개발 차원에서의 진출 모색이 필요하다. 미래 전문대학 발전의 한 축으로서의 기능, 자원 활용,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 접근 틀 마련, 기본 계획 수립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고등교육 구조조정에 따른 효율적 대응, 전문성, 유희 시설 장비·인력 활용 등을 위해서도 매우 필요하다.

실제로 국제개발협력 사업 참여 시 경험 부족, 전략 부재 등 참여요건 구비 부족으로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략적 사업추진 기회 확보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단위 전문대학에서 효율적 대응이 어려울 경우, 전문대학교육협의회 차원에서 별도의 기구, TFT 등을 구성하여 파일럿 형식으로 양질의 제안서 작성, 사업수행, 결과 피드백 등까지 수행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전문대학의 ODA 참여 및 발전방안(계획) 마련을 위해 첫째, 협의회, 관련 대학(협의회, 산학협력단 등)의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및 효율적 대응, 협의회 및 대학 간 연계, 협력을 통한 체계적 접근, 개별 대학의 참여자(교수)에 대한 안정적 지원, 인센티브 등 유인책 마련 유도 등이 필요하다. 둘째 기존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참여 모델 개발을 통해 교육훈련 분야의 PMC 부족 문제 해소가 필요하다. 교육훈련 분야는 상의, 한기대, 폴리텍대학, 산업인력공단 등이 대부분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 컨설팅 기관(KPC, KSA 등),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이 참여하고 있으나 전문대학의 다양성, 전문성을 반영하고, 개도국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의 참여가 필요하다. 셋째, GHC, PPP 등과 연계한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 수행 사업과 연계, 시너지를 창출하고, 단순 원조 위주의 지원에서 Software, Program, 후속사업과 연계로 지원 방식 개선과 연계, Sector별 지원에서 CAS에 기초한 지역별 지원으로의 정책변화에 효율적 대응 등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기본방향에 대한 이해와 인식, 대응이 필요하다.

## 2.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의 문제점<sup>2)</sup>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은 비교적 역사가 짧을 뿐만 아니라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국민들의 관심은 내부 갈등조정에 집중되어 최근에 이르러서야 대외원조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다. 따라서 선진 공여국에 비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잘 갖추지 못하고 있다.

첫째, 한국에는 개발협력 컨설팅 산업이 발달되지 못하였다. 특히 교육훈련 개발협력 사업의 경우 주로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에 의해서 수행되어 왔으며 민간 컨설팅 기업의 참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공공기관 및 대학교수 중심의 개발협력 사업은 일관성 있는 컨설팅서비스의 제공 및 사후관리가 어려워 컨설팅 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하는 데 한계를 지닌다.

둘째,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의 양성과 활용 시스템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일부 대학교들은 ‘국제개발협력 대학원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고, 경희대는 전문가를 위한 단기국제개발협력과정(16주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국제협력단은 ‘개발협력 인지기강화사업’의 일환으로 17개 대학교에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교과목 개설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은 개발부처나 기관 개별적인 사업으로 일회적인 경우가 많다.

셋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연구 지원이 미흡하다. 한국에는 개발에 관한 연구를 전담하는 기관은 없으며 일부 정부출연연구소에서 관련 부문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연구를 단편적으로 수행하여 정부의 정책을 부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수원국에 대한 지원이 공급자 주도적이고, 시설장비 중심의 프로젝트 방식을 지향하여 개발협력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하지 못하였음을 반영하고 있다.

넷째, 한국의 개발 NGO의 수는 1990년 이후 계속 증가하여 현재 한국국제협력단에는 80여 개의 국제개발 NGO가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짧은 역사로 인한 체계적, 재정적 한계로 인하여 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이나 개발현장에서 현지화되어 사회적 운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

다섯째, 한국 국민의 개발협력에 대한 이해와 지지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외교통상부가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1%가 한국의 대외원조 시설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13개 DAC 회원국의 평균 81.4%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이영현 외(2009). “교육훈련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전략”.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참조

다음 <표 15>는 본 연구에서 해외 사례 대상인 선진 공여국들과 한국의 교육훈련 국제개발협력 실태를 정리한 것이다.

<표 15> 주요국과 한국의 교육훈련 국제개발협력 비교

내용	세부항목	주요국	한국
제도적 장치	정책 및 집행체제	통합적 또는 협력적 체제	분산된 체계
	전략	선택과 집중	다수의 국가에 지원, 지원규모의 영세성
	조직 및 관리	사업관리의 분권화 사업의 질 관리 강화	중앙집권적 사업관리 현지사무소의 역할 미미
교육훈련개발 협력 실태	정책	빈곤 감소 고용 증대	-
	교육원조 비중	1~20%	9~20%
	우선 교육부문	기초교육 강조 (고등교육, 직업교육훈련)	직업교육훈련
	지원 형태	프로그램 방식 또는 SWAp	시설장비 중심의 프로젝트 방식
	전문가 활용	집행기관의 전문가 양성 및 활용	외부 전문가 활용
	사업의 관리	성과 중심의 사업관리	비효율적 사업관리, 사업의 질관리 미흡
지원시스템	컨설팅산업	발달	미발달
	전문가 양성지원	체계적 지원	개별적, 일회적
	개발협력 연구	개발협력 연구시스템 구축	미흡
	NGO 참여	적극 지원	미흡
	국민적 지지	높음	낮음

## IV.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양성 방안

### 1. 기본 방향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공 여부는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가들에 의해 좌우된다.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의 전환, 개별 프로젝트형에서 수원국의 제도, 정책 시스템 개선을 포함하는 프로그램형으로의 전환으로 전문인력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향후 교육훈련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본방향으로 첫째,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양성의 양적 확대 및 질적 내실화, 둘째, 국제개발협력 인력수급 차 해소 및 교육시장과 노동시장의 유기적 연계, 셋째, 국제개발협력 컨설팅 산업 육성 및 민간부문 활성화 지원, 넷째,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양성, 배분,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이다.

### 2. 세부 추진 방안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각 주체별 세부 정책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6〉 주체별 세부 정책제언

공공부문			민간부문		
정부부처 (지자체 포함)	전담기관	산하기관 (PMC 포함)	국제대학원	NGO	민간컨설팅
-교육훈련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양성 기본계획 수립	-역량있는 전문인력 확보	-자체 전문인력 확보, 인센티브 부여 및 역량강화 지원	-학위과정 확대 및 비정규과정, 단기 특별 과정 개설 확대 및 신축적 운영	-양성, 향상 등 연수 프로그램 확대 및 내실화	-자체 역량 강화 및 사업수행 체계 구축 효율화

<표 계속>

공공부문			민간부문		
정부부처 (지자체 포함)	전담기관	산하기관 (PMC 포함)	국제대학원	NGO	민간컨설팅
-제도적 기반(행재정) 확립	-전문가 DB 구축 재구조화 및 활용성 강화	-고유의 사업추진 모델 개발	-교육시장과 노동시장 연계 시스템 구축(StW)	-이직, 전직 경로 다양화	-협의회 중심의 대표성 확보 (Collective Voice)
-사업주체(Actor)와의 협력, 연계 체계 구축 및 효율적 관리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양성 기관 운영 효율화	-관련 인력수요 전망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직무분석 포함)	-장기 학위과정 위탁 확대 및 내실화		
-참여 주체 고유의 전문화 및 전문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지원	-대학 등 인력양성기관과의 협력 강화				
	-봉사단 등 기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은퇴 인력 활용 확대				

## 가. 정부부처

### 1)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양성 기본계획 수립

현재 국제개발협력 및 교육훈련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인력양성, 향상은 물론 양성, 배분, 활용과 관련한 근본적인 방향과 중장기 계획이 전무한 실정이다. 국무총리실 개발협력관실이 주관하여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나 인력과 관련된 부분은 지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차제에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이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사업 및 인력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참여 인력에 대한 양적, 질적 격차를 분석하고, 이에 따라 필요인력의 수급 전망 도출, 적합한 인력양성 및 배분을 추진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 2) 제도적 기반 확립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양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행정적인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교육

시장 부문과 관련하여 2007~2009년간 진행되었던 수도권 대학특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경희대와 이화여대에서 국제개발협력 전문과정이 운영된 바 있다. 현재 교육역량강화사업으로 통합되었으나 특성화 사업 부분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지난 경험과 성과를 토대로 대학 차원에서 관심과 정부 차원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제도화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지침 등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 3) 사업주체 간의 협력, 연계체계 구축 및 효율적 관리

현재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국무총리실을 비롯하여 외통부, 기재부 등을 중심으로 한 부처와 KOICA, 수출입은행을 중심으로 한 전담기관 및 기타 정부부처, 지자체 등이 주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교육훈련 분야를 보더라도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공공부문의 정부산하기관, 일부 대학 등에 편중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인력은 개인 및 일부 기관 차원에서 참여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각 주체들의 전문성 강화와 더불어 보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체계적인 국제개발협력 전달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 4) 참여 주체 고유의 전문화 및 전문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지원

프로젝트 사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국제개발협력에 많은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대부분 공개입찰을 통해 위탁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정형화된 형태로 관련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 참여 및 사업수행 주체들의 자체 사업역량 강화와 전문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국가 주도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체계에서 참여 주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적합한 인력 확보 및 활용을 통한 사업효율화를 달성할 있도록 가이드 및 지원할 필요가 있다.

## 나. 전담기관

### 1) 역량있는 전문인력 확보

국제개발협력 및 교육훈련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은 순환근무 시스템인 부처를 제외하면 KOICA, 한국수출입은행 등 전담기관 종사자의 역할과 기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개별 사업운영에서부터 기획, 연구, 평가까지 국제개발협력 전 과정을 진행하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들 집단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와 더불어 양적인 인력 확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KOICA 228명, 한국수출입은행 70여명(대외경제협력 분야 종사자)에 그치고 있는 전담기관의 기능을 확대하고, 관련 인력을 추가 확보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들 인력들의 전문화, 특성화 지원을 통한 사업 효율화가 필요하다.

## 2) 전문가 DB 구축 재구조화 및 활용성 강화

현재 자기등록식으로 입력된 정보를 KOICA와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하고 있다. 전문가풀에 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한 번이라도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비중이 크게 높지 않다. 이는 자기등록식이라는 제도적인 측면도 있지만 실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인력풀이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측면도 있다.

전체 인력, 활용 경험 보유 및 가능인력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전문가 인력풀을 체계적으로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개별 사업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전체 인력풀과 별도로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활용하고 있는 전문가풀도 있으므로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고려한 활용이 필요하다.

## 3)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양성기관 운영 효율화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각 전담기관은 현지 파견 전문가 교육을 위하여 초급 수준의 교육이 진행되어 왔고, 지금도 매뉴얼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프로그램이 형식적이고, 단순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 이를 담당하는 기구가 명확하게 설립되어 있지 않았다.

KOICA의 경우, ODA 교육원을 설립하여 전문가 파견 교육을 비롯하여 국제개발협력 전반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교육, 전문교육, 특별교육 등으로 교육과정을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 단기 위주로 심도 있는 교육훈련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더구나 활용 가능한 전문성 있는 강사의 확보, 교육대상의 지속적 발굴 등 어려움이 있어 보다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훈련 수요발굴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체계화,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독일 GDI의 연구, 교육훈련, 컨설팅 기능이 모두 가능한 기관의 지정 혹은 설립과 Post Graduate 과정과 같은 연수프로그램 개설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 4) 국제대학원 등 인력양성기관과의 협력 강화

우리나라에는 현재 학부수준에서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은 없다. 국제대학원을 중

심으로 국제개발협력 전공이 개설되어 관련인력을 배출하고 있으나 인원이나 수준이 실제 현장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담기관과 국제대학원간의 연계를 통한 수요발굴 및 수요에 적합한 교육과정 개설 운영이 필요하다. 유사한 예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국제대학원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역전문가 양성과정은 좋은 예이다.

아울러 국제대학원 재학생들이 실제 국제개발협력 프로젝트 등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론과 실무를 함께 함양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국제개발협력 분야는 현장 특수성이 다른 어느 분야도 강해 이러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은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 5) 봉사단 등 기존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해외봉사단, NGO 단체 종사자 및 관련 프로그램 참여자 등 이미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대한 기초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인력들이 이 분야에 취업하고, 전문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해외봉사단 이수자의 경우, 전담기관 등 채용 시 우대혜택 부여, 국제대학원 등 관련 분야 석박사과정 진학 시 학비지원, 경험인증을 통한 자격부여 및 마일리지제 운영 등 다양한 지원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 6) 은퇴인력 활용 확대

핵심역량과 경험을 보유한 은퇴인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외교부와 지경부 등에서 은퇴인력 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경부는 「퇴직전문가 해외 파견사업(Gray Experts Project)」에 42억원을, 외교부는 「증장기 자문단 파견사업(World Friends Advisers)」에 30억원을 투자하여 각 50명 규모로 선발할 예정이다. 지경부와 외교부는 개도국으로부터 파견 희망 수요를 접수받아 지경부는 62개 직위, 외교부는 46개 직위를 공모하고, 약 70명을 선발(지경부 외교부 각각 3~40명 수준)하여 파견할 계획이다. 지경부와 외교부는 각 사업을 특징에 따라 차별적으로 추진하되 대외적으로 정부파견 해외봉사단 통합브랜드인 「World Friends Korea」를 사용하여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파견대상 분야와 파견 대상 국가 선정 시에 각 사업의 목적과 역할에 부합하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권고하고 있다.

## 다. 산하기관(PMC 포함)

### 1) 자체 전문인력 확보, 인센티브 부여 및 역량강화 지원

정부부처 및 전담기관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들로 이들 기관 자체에서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이해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소속 전문가들이 관련 경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업 외에 과외의 일로 치부되어 프로젝트 등 관련 사업의 수주, 전문가 참여 등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아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부처, 전담기관, 사업 수행기관 간의 협력 제도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해당 기관에서는 이들 인력에 대한 기관 기여도 제고 방안과 더불어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인센티브 부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2) 고유의 사업추진 모델 개발

국제개발협력 사업 및 예산 확대에 따라 참여 기관도 증가하고 있다. 수원국 등에서 필요한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기관이 소속된 분야의 특수성과 기관의 특징점을 살려 기관 고유의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분야 전문인력이 양성, 관리되고, 관련 사업에 활용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현재 지원 프로그램과 별도로 사업추진 모델 개발을 지원하고, 이에 부합하는 전문인력 보유 및 양성 시 우대하는 등 새로운 지원방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3) 인력수요 전망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관련 분야 전문기관으로서 해당 분야 인력 수급전망에 따라 필요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재 연수과정을 보더라도 대부분 일정한 틀에 얽매어 기초, 일반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인력수요 전망 혹은 수요조사에 기초하여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라. 국제대학원

### 1) 학위과정 확대 및 비정규과정, 단기특별과정 개설 확대

일부 국제대학원에서 전공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 분야 과정을 별도의 국제개발협력 대학원 과정으로 확대 개편하고, 정원 및 교육과정을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 정규 학위과정과 더불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 단기 특별과정 개설을 확대하여 시장 수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수요에 기반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 2) 교육시장과 노동시장 연계 시스템 구축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특성 상 국제대학원 이수 후 바로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물론 국제대학원 교육과정에 기관방문, 현장실습 등이 있으나 이를 목적에 부합하도록 학습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국제대학원 등 교육시장과 이를 수요하는 전담기관, NGO, 민간컨설팅 기관 등과 연계하여 인력양성 및 이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간 정보 및 인력교류를 위한 정기 협의체 구성 운영, 관련 인력의 양성, 활용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 3) 장기 학위과정 위탁 확대 및 내실화

연수과정의 하나로 국제대학원 개설 대학을 중심으로 위탁 수행되고 있는 수원국 대상 장기학위과정을 확대하여 개발수요 및 현지 전문인력 양성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체 국제개발협력 관련 교육인프라 확대와 더불어 관련 전문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해당 학교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선진공여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기 학위과정 및 특별과정이 효과가 크고, 이를 통해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장기 학위과정 위탁운영을 확대하고, 이를 내실화 할 필요가 있다.

## 마. 개발NGO

### 1) 연수 프로그램 확대 및 내실화

개발NGO에서 수행하고 있는 파견 전문가 양성, 향상 등 연수프로그램을 보다 확대하고 내실화하

여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양성이 주요 프로그램으로 정착,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사업으로 개발하여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발NOG는 수원국 현지 수요를 가장 근접해서 발굴하고, 이를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집단이다. 따라서 이들 그룹을 통해 수요발굴과 이에 부응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개발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 2) 이직, 전직 경로 다양화

국제개발협력 노동시장에서 국제대학원 등 양성 기관 이후 후 가장 많이 진입하는 시장 중의 하나가 개발NGO이다. 다만, 개발NGO 활동 조건이 열악하고, 이에 대한 보상수준 또한 낮은 실정이어서 이직과 전직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이들 인력들이 원활하게 적합 분야, 직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과 관련한 Career Path를 개발,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원활한 직장이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 바. 민간컨설팅기관

### 1) 자체 역량 강화 및 사업수행 체계 구축 효율화

정부주도의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특성 상 민간분야의 발달은 매우 미미한 실정으로 현재 KDS, KIDI 등 매우 극소수의 민간컨설팅 기관이 활동하고 있다. 이는 민간컨설팅 기관들이 국제개발협력 시장의 주요 주체인 선진공여국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자율성, 효율성에 기초한 신속한 의사결정, 사업수행이 가능한 특성을 고려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 육성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전담기관 은퇴 혹은 근무 경험자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 운영되고 있는 민간 컨설팅 기관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국제개발협력 시장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들이 민간부문으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단가를 국제 수준으로 대폭 조정하여 관련 기관이 많이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 2) 협의회 중심의 대표성 확보

올해 출범한 국제개발협력 컨설팅협의회를 중심으로 관련 인력기구의 기능, 역할을 강화하여 국제개발협력 정책, 제도 수립 시 의견 반영, 사업주단체로서의 업종 대표성 확보 등을 통해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